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

변종(變種)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The Jesus Times 논설위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pandemic) 코로나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숫자다. 7월 4일 기준으로 확진자 상위 5위는 미국 289만1천 명, 브라질 15만13천 명, 러시아 6만8천 명, 인도 6만 명, 스페인 29만8천 명 등이며, 사망자 상위 5위는 미국 13만2천 명, 브라질 6만3천 명, 영국 4만4천 명, 이탈리아 3만5천 명, 프랑스 3만 명 등이다.

유엔 인구 기금 (UN Population Fund/UNFP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 인구는 77억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만 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130만 명으로 세계 28위이며, 북한은 2580만 명으로 세계 54위를 차지했다. 남북한 인구를 합하면 총 7710만 명으로 세계 20위로 경총 뛰어오른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030명(7월 4일 0시 기준), 그리고 사망자는 283명이며,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둘째 주까지는 수도권 비중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비(非)수도권의 비중이 30%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광주와 대구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역대 처음으로 앞지르게 된다.

코로나19(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SARS-CoV-2)가 전과 속도가 빠른 변종(變種)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셀(Cell) 저널에 발표됐다고 7월 3일 미국 CNN이 보도했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연구진은 유전자 배열 확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상해 시험, 세포 배양 등을 통하여 변종 바이러스가 흔히 발견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遺傳子鹽基序列, gene sequencing)에 따라 중국에서 초기 유행을 주도한 S형과 이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국내에서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V형,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G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G형은 GR과 GH 등으로 변이됐는데, GH형은 감염력이 최대 6배 높다고 미국 듀크대와 로스앨러모어연구소 공동연구진이 발표했다. 영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농도가 초기 바이러스보다 6배쯤 높고, 감염 확산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이후 발생한 2363건의 확진자 가운데 주요 집단감염 최초 전파자 등에서 검출한 313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308건(98.4%)이 GH그룹으로 판명됐다고 7월 6일 발표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광주 광복사와 금양빌딩 사례를 포함해 서울 이태원 주점, 수도권 개척교회, 쿠팡물류센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등의 사례가 모두 GH형으로 분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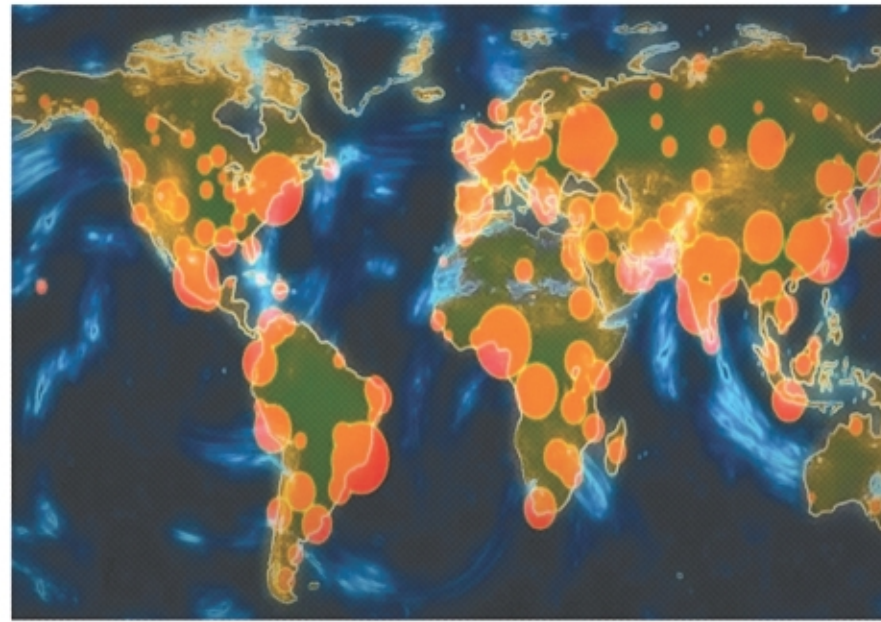
변종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변종이 아닌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突起, bump)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대유행했던 사스(SARS) 바이러스의 막단백질(膜蛋白質, membrane protein)과 76% 유사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수용체는 ACE2이며, 폐세포에 많이 존재한다. 코로나19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 중 하나인 폐렴(肺炎)이 나타나

복제되고 전염성이 높은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며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훨씬 치명적인 부분에서 주요한 변이가 일어난다면 백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날 플로리다주 스크립스 연구소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전파력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백신개발이 어렵다.

한편 미국에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는 길이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 제품으로 미국 내 공급이 우선적이므로 8월 이후 미국 외 국가에 대한 공급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는 것은 ACE2가 폐세포에 많이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숙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본인은 느끼는 증상은 매우 미약하지만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에서 폐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 지난날 코로나19로 숨진 80세 남성은 확진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었지만, 인천 가천대학 길병원에서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는 중증 폐렴으로 폐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입원 사흘 만에 숨졌다.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미국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 NIAID) 소장은 지난 7월 2일 미국 의학 협회지널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더 잘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는 투약량으로 7월 한 달 무상으로 공급되는 만큼 물량에 한계가 있어 투여 대상 환자의 조건이 제한된다.

렘데시비르는 독감(毒感)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길이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 EHF)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抗)바이러스제(劑)다.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4일쯤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식품의약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우

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7월 3일 렘데시비르를 국내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메디케어 등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렘데시비르 10ml짜리 1병당 가격은 390달러(약 47만원)이다. 이는 미국 공공보험과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개발도상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다. 한편 미국 민간보험 가입자는 520달러(약 62만원)에 공급받게 된다. 즉 미국의 경우 공공보험 가입자는 민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투약은 5일간 10ml 주사약 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투약 기간을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感染病預防法)에 따라 전액 국가 부담하므로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 부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정오 기준으로 국내 14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중증환자 19명에 대해 렘데시비르 투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물량이 제한되어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투약자 세부 조건은 ▲흉부엑스선(CXR) 또는 CT 상 폐렴(肺炎)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등이다.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8병)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투약 치료 코스는 첫날 2병, 이후 4일간 1병씩이다.

렘데시비르 약값이 기존 예상치보다 저렴해진 이유로 일각에서는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의 등장을 꼽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영국 정부는 항염증 스테로이드 약물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덱사메타손의 가격은 5파운드(약 7,600원)로 저가 약물이지만 코로나19 치료에 효용성을 보이자, 당초 고가로 형성됐던 렘데시비르 가격이 하락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재질에 따라 다르다. 즉, 구리(copper) 재질 표면에서는 최대 4시간, 천과 나무·플라스틱은 1일, 유리는 2

일, 스테이리스 스틸과 플라스틱에서는 4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소독은 소독제 분무·분사방식 대신에 물체 표면 소독이 중요하므로 일회용 천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방역 체계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와 대응을 하면서 환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감염자를 찾을 수는 없다. 최근 집단 발병 사례에서 확진자 30%는 무증상 상태였다. '무증상 감염' 문제는 무증상이면서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더군다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높은 전파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교활(狡猾)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미국 MIT 연구진은 COVID-19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6억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1918년에 발생한 2년간 5억 명을 감염시킨 스페인 독감(Spanish influenza)의 확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WHO는 7월 4일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1만2326명이 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봉쇄(lockdown)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서려면 개인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즉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3일(밀집·밀접·밀폐)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겐 빈틈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어김없이 나타나 감염시키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靑松 朴明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The AsiaN·시사주간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753).

발음이 있거나 초음파 증상은 있음을 알려주세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감염병에 의심될 때는 ☎1339로

MBCNEWS

코로나19 예방법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손을 자주, 꼼꼼하게 씻어요!
가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세요!

발음이 있거나 초음파 증상은 있음을 알려주세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코로나19 · 기도로 함께 이겨냅시다!

2020. 표어 : “거룩함을 회복하는 총회”[레 11:44~45] “지저스타임즈 제공”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신대학원장	직전 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전북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원안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동성현교회)	천중록 목사 (연악교회)	강치현 목사 (밀양교회)	김주현 목사 (법라엘비야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전북교회)	임상국 목사 (전북복지교회)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단과 개인, 기관의 가임을 환영합니다!!

동천교회와 세향교회의 임직식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증경총회장, 총회장, 임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는 신문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개월간 취재 활동이 어렵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후원과 기도요청 드립니다. (대표 정기남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 이사장 : 이규필 목사 H.P(010)7474-3173 [신문사 010-5468-6574]

총회 본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 02)854-1326, Fax 02)496-0181 H.P(010)7474-3173

정부가 교회를 꼭 집어 규제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하는 것인가?



한국교회연회회 대표 유한석 목사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하,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집합(예배)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對面)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와 통성기도 자제, 음식 제공 및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잘 지키던 준수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은,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회 금지로 다스린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7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를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6만 여개의 교회 가운데 30여개 교회로 0.053%에 해당된다. 그것도 6개월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숫자이며 비율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을 꼭 집어서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규제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기독교만 한국에서 유일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만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6개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방역의지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한국교회는 어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어떤 단위의 집합체보다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와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규제부터 들고 나온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며, 기독교를 가깝게 보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국민들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이다.

이래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정권력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妄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적인 문제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7월 9일 11시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255,273명에 달한다. 이는 청원 게시 하루 만의 일로, 기록적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이 정부가 방역을 발미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특히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몰상식적인 행정명령 작태를 멈춰야 한다.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는 그동안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 총리가 교회를 콕집어 문제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압박의 수준이 아닌가.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 하다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하게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7.8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십자가의 도와 영성』1

주제: "자연인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합동부총회장)

1.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① 전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세상에서의 복이란 두가지의 개념은 많은 재물을 취하는 것과(마 6:24)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시 133:3) 그 만남이 인생 최대의 축복의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란, 어떤 전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전도자의 성격과 성품, 신앙의 스타일을 따라 초신자의 신앙방향과 신앙철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빌 4:9) 그것은 교회와 기초 신앙생활을 모르는 초신자에게는 전도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전도자는 "예수님 믿으면 복(福) 받습니다"라고 소개한다.(행 16:31) 이 소개는 초신자들에게 훗날 많은 괴리를 남게 한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 133:3 혈혼의 아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갈도다 거가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 16:31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② 전도자의 출석교회를 잘 만나야 한다.
출석교회의 성향 수 많은 성도들은 보통 자기성향에 맞는 교회로 다닌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특성상 전도자는 다른 교회로 안 내리기 보다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초신자를 안내한다. 본인도 그 출석교회에서 첫 은혜를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거기서 양육을 받고 있으므로 마땅히 그 교회의 신앙철학과 신앙 스타일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따라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싫던 종교심을 따라 평생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

③ 전도자의 성향과 같은 교회 대개 전도자는 성경과 자신의 신앙체질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이 첫 출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부정적인 교회인지 자신을 그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교회의 모든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교회로 출석을 한다. 전도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알고 있고, 자신과 무언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인도는 초신자의 인격과 성향, 평소의 철학,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초신자의 관계에 의하여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초신자를 인도하는 것이다. 즉, 전도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회로 초신자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첫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한다.
첫발을 교회에 디디는 초신자의 마음! 첫걸음을 디딘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수많은 신앙선배들! 처음 대하는 예배분위기, 처음 보게 되는 담임목회자! 처음 듣게 되는 설교 등은 평생에 진한 여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요소 중에 초신자가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는 사람은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이다.

처음 만난 목회자의 이미지는 첫발을 교회에 디디는 초신자의 마음! 첫걸음을 디딘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수많은 신앙선배들! 처음 대하는 예배분위기, 처음 보게 되는 담임목회자! 처음 듣게 되는 설교 등은 평생에 진한 여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요소 중에 초신자가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는 사람은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이다. 초신자의 첫발을 디디는 초신자의 마음! 첫걸음을 디딘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수많은 신앙선배들! 처음 대하는 예배분위기, 처음 보게 되는 담임목회자! 처음 듣게 되는 설교 등은 평생에 진한 여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요소 중에 초신자가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는 사람은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이다. 초신자의 첫발을 디디는 초신자의 마음! 첫걸음을 디딘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수많은 신앙선배들! 처음 대하는 예배분위기, 처음 보게 되는 담임목회자! 처음 듣게 되는 설교 등은 평생에 진한 여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요소 중에 초신자가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는 사람은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이다.

한교연 성명서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정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

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는 그동안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감염 확산 방

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자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ltpress@hanmail.net / jltvcp@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선교에 후원이시기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만남 행복만성도 (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성성경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림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무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삼강병으로 슬막하고 귀여우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리증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신로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예 배 시 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곡로 16길 11(신현동)
동대구 반도유복리 상가(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 과정 : 찬양, 율동, 위임, 한국무용
-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 장 소 : 꾸미오리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 문 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20 동여
전도회 선교회는 한 해

-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류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부천 세향교회 장로장립, 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수)총회 한중노회 세향교회(김관호 목사)에서 지난 7월 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40번길 소재 3층 본당에서 장로 장립, 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예배가 많은 가족과 친지 교우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스럽게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에 담임 김관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한중노회장 한기장 목사가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계시록 2:10),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세향교회로 모아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을 담임 김관호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축하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일꾼 세우는 것이며, 예수님도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일꾼을 선택하셨으며, 여러분도 다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세향교회의 일꾼이 더 필요하셔서 세우셨다고 전했다. 또한 이규필 증경총회장은, 왜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상급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임직자들은 평안하여 돈독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데 임직을 받은 자는 서로



가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비롯 성도들 모두가 낮추고 섬기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직분을 맡은 자는 사명감이 확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 하는 있다고 말하고 주의 일꾼은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에 사명 감당에 힘써야 한다고 직시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가치 없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을 기원했다.

제2부 장로장립, 집사임직 및 권사 취임 순으로 진행되어 담임 김관호 목사는 개식사에 이어 임직자들이 기립한 가운데 서약하고, 교우들 및 가족들이 기립하고 예로 서약했다. 이어 안수위원은 장로로 임직을 받는 최수민, 안종봉을 불러서 안수하고, 또한 집사 임직자 장경식, 박건서를 안수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세향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김관호 목사는 또 한명목, 진성실, 최영심, 한경희, 김점자, 김인순, 장금화, 강순영, 김병애, 김춘일 씨 등을 호명,

권사로 임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세향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어서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을 전하고,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는 축사를 전했다. 특별 순서로 김승환 목사, 김희정 사모의 축가가 진행되고, 담임 김관호 목사는 임직자 모두에게 각각 임직패를 증정하고 다른 교회서 권사로 섬기다가 세향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권사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영했다.

아울러 최수민 장로는 임직자를 대표하여 답사를 전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관호 담임목사의 인사 및 광고를 끝으로 증경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임직자들과 온 교우들은 서로가 축하와 격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은혜로웠다.

동천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 취임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한중노회 동천교회(이규필 목사)에서 지난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소재 2층 본당에서 장로장립 및 권사 취임식이 많은 가족과 친지, 교우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에 담임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한중노회장 한기장 목사가 기도, 노회서기 김관호 목사는 성경 딤편 1:12-14절을 봉독하고, 동천교회 할렐루야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고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는 “충성되어 여겨 맡겨진 직분”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강대일 목사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축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했다. 또한 주님께서 연합한 우리를 택하셔서 인정해주시고, 충성되어 여기서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사명감이 확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직시했다. 또한 주의 일꾼은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에 사명 감당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리고 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가치 없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만을 섬기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

제2부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식이 진행되어 담임 이규필 목사는 개식사에 이어 임직자들과의 서약과 교우, 가족들과도



서약했다. 이어 안수위원이 둘러선 가운데 임직자 김영택을 안수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천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어 김금자, 백희숙 집사를 권사로 취임케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천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임직자와 교



우, 가족들을 권면하고,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의 축사와 축가가 있었다. 이어 담임 이규필 목사는 김영택 장로와 김금자, 백희숙 권사 등에게 각각 임명장과 임직패를 증정했으며, 김영택 장로는 임직자를 대표하여 답사에 나섰다. 이어 담임 이규필 목사의 인사 및 광고를 끝으로 증경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자”

종말론과 목회사역 세미나

주님의사랑교회(담임 서사라 목사)는 지난달 24일-26일 3일간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종말론과 목회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일째 세미나에서 서사라 목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오전 강의를 인도했다.

서 목사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요한 계시록은 차례대로 일곱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 일곱 나팔 재앙이 차례로 불리고 그다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여섯째 인을 떼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계시록 7장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아야 하는가? 첫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 불꽃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둘째,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황충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강의에서는 엘머 매스터스 박사(밴가트대학교, KSU 명예총장)가 ‘오순절 교회의 종말 신학 관점과 의의’에 대하여 세미나를 인도했다. 엘머 박사는 오순절 교회의 환란 전 후



▲제1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종말론과 목회사역 세미나 주강사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와 전 천년 제임을 포함하는 종말 서정, 예수 재림, 적그리스도 불뚫행, 사단 무지경 행 및 신자들이 예수와 영원한 나라 통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제1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종말론과 목회사역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러신다 서터필드 박사, 로버트 서터필드 박사, 홍용표 박사 등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한편 국제오순절교단에서는 세미나를 마친 후 제1회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번성교회

2020 번성표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담임목사 박정균 (혁신총회장)
Rev.(D. Min): Park Jeong Kyun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20 표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 (요 20:21)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3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철야: 저녁 8:00

담임목사: 이창범
신앙심화/교육/행정/사역/예배/전도/선교/회화/지파사/인도/이웃사랑/안락부흥/사명/의총/제

바울선교사학원연구원/한복선교교육원/한복선교회/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푸른솔노인복지센터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대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이창범
신앙심화/교육/행정/사역/예배/전도/선교/회화/지파사/인도/이웃사랑/안락부흥/사명/의총/제

광주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디움 2차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으려합니까?”

지난 7월 8일 중대본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교예배 외 교회 내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시 벌금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날 저녁에 총회 임원 회를 할 때 중대본에서 이런 발표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연합 기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 연합기관에서 한 번 지켜보자 해서 저도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엘토당도 않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에도 이곳저곳 연락을 해서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순선수범하며 앞장서야 되겠지만 중대본의 발표는 너무 한 것이니 해제를 촉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도 항의도 하였지만, 마음이 너무 분하고 허탈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교회는 얼마나 방역을 잘했습니까? 의료 전도사님을 세워서 메디컬 처치를 운영하였고, 정부의 7대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지금도 특허청 허가를 받은 열 온 도기와 항균 소독기 수십 대를 교회 입구와 교육 공간에 설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의 발표가 있는 당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취소 청원이 20만 건이 넘었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34만4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중대본이 너무 극단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중대본이 교회로 하여금 방역을 잘 지키는 쪽으로 선도를 해야지, 물리적 제약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작월선후 납폐지경’이란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리석고 눈 먼 원숭이가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와 중대본이 한국교회를 물에 비친 달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합리적으로 방역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정신적, 영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합체와 저항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국교회를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고도의 ‘달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처럼 한국교회가 그나마 어둠속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불마저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교착상태고 경제가 파탄 지경에 놓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위로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이 극단적 대립을 할 때 정주영 회장처럼, 한국교회가 소테라도 물고 의약품도 싣고 가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평화의 길을 열어놓는데 이렇게 교회를 옥죄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열려 있는 사람이어서 일부 수용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청와대나 광화문 집회를 하자고 해도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대본의 발표에는 아주 심한 마음이 듭니다. 중대본이 어리석은 원숭이 같은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물 위에 비치는 달처럼 착각해서 보지말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대본이 조속하게 시정하고 해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강석 목사
새연교회

| 마약 범죄와의 전쟁(10)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 이어서〉

정맥주사 및 피하주사시 발생하는 합병증

피부감염 : 불결한 주사바늘이 찌른 피부에 농양이 생긴다.

심장판막 감염 : 때때로 세균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 심장판막을 감염시킨다.

폐렴과 농양 : 정맥으로 주사된 물질이 심장으로 가고 후에 폐로 옮겨 가서 불순물, 또는 세균이 감염을 일으키거나 폐조직을 손상 시킨다.

정맥염 : 약물이 주입된 정맥에 생긴 부종, 정화, 염증이다.

임부에 있어서의 특수 합병증 : 더 많은 미숙아를 분만한다. 때로는 태어난 아이에게서 약물의 내성이 발견되어 약물의 급단 증상이 있고 사망률도 높다.

고된 생활을 견뎌나가는데 필요한 피로와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약효들을 코카인 일사귀에서 발견.

코카인(COCAINE)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지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코카나무 잎으로부터 얻어지는 약물로, 1853년 순수 코카인 알칼로이드가 분리되어 국소마취제로 사용됐다. 이것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작용은 즉각적이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안데스 산맥의 인디언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들은 황량한 지역에서의 고된 결집생활을 견뎌나가는데 필요한 피로와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약효들을 코카인 일사귀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교청년회 이사장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6-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는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지난호 이어서〉

④ 욕구는 영혼을 더럽히고 때 묻힌다. 사역자가 바르지 못한 욕구에 끌려서 굴복되면 사역자의 영혼은 더러워지고 추하게 된다. ⑤ 욕구는 사역자의 모든 힘을 미지근하고 약하게 하여 완력으로 나아갈 마음을 못 갖게 하고, 나아가도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자살한 것에 마음을 써서 욕구의 힘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하면서 욕구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욕구를 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욕구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내 안에 있도록 허락하고, 내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욕구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잃고 동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모든 욕구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적으로 내 안에 있도록 허락하고, 내 안에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힘들지만 화가 나 있는 나를 인정하고 화가 난 상태에 이내심을 발휘하여 머물라는 것이다. 이때 도피하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니 도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화가 어떻게 발생하여 가라앉고 점점 사라지

는지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화를 어떻게 내는지 그 진행과 정도 볼 수 있고, 또한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맞는 수련을 하면 바르게 화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외적으로 화를 표출할 때는 복을 정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면 기쁘도록 허락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인정하고 허락하여 욕구들이 내 안에서 마음껏 표현되도록 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욕구는 완전히 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생명의 전화, 동포의 애절한 애환 나뉘

1월~3월 상담 분류표 분석 결과/

침묵 전화 및 고독 외로움 순으로 나타나

생명의 전화는 동포들의 좌절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전화상담 사역을 22년 동안 펼쳐온 가운데 원장 박다윗 목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화 상담을 한 후 상담 분류표를 작성 발표했다.

박다윗 목사는 “은 세상이 온통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미증유의 위기사태가 이어져 몇 개월을 집콕으로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이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동포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위기감이 감도는 불안한 때에도 우리 상담실엔 항상 상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비주 동포 사회에서 숨 막히는 답답함을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 전화는 동포들의 좌절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전화상담사역에 앞장 서왔다. 해마다 상담을 통해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동포들의 힘든 일은 줄어 들지 않는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은 늘 무겁지만 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



▲생명의 전화 원장 박다윗 목사.

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동포들의 상처 난 심령에 재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상담을 이어 가고자 한다. 동포들이 낯선 타국에서 살며, 힘들고 슬픈 때 가슴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의 전화는 사막하고 각박하며 냉랭한 이민사회와 가정에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처음 시작된 가운데 올해로 설립 22주년을 맞이했다.

■상담 분류표(지난 1월부터 3월까지)

LA 카운티 경제 재개 7월 4일 전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감소에 따라

코로나 19 비상사태로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LA 카운티 당국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 후해서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보

건 당국은 코

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 추세를

여전히 우려되지만 비즈니스 운영 재

개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LA카운티

당국이 지난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률이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감염자 한 명 당 세 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를 일으켰던 것에 비교

해 볼 때 최근에는 한 명당 한 명의

추가 확진자를 일으켜 뚜렷한 감소세



▲ LA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레이 국장.

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7월 4일까지 전면적으로 모든 경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위 결정은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내린 조치이다. 현재 거주 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카운티들의 경우 식당 내 서비스 또는 실내 쇼핑 등 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천비전 보도

장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단순장례 : 1,200,000원
기초장례 : 2,100,000원
고급장례 : 2,900,000원

필요한 용품만 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합리적 장례
전문 장례지도사가 내 가족 내 형제 와 같 히 함께 합니다.

장례 의전의 전문화 장례 의전의 명품화 한국의전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상품검색 :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상품검색 :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상품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행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국대표번호: 1644-254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겸한 온라인 대각성 집회

8월 3일-15일 주일을 제외한 2주간 새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지난 20년 동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열어 교회와 미국과 전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 왔던 JAMA(대표 김순영 목사)가 금년에는 COVID-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어렵게 되어 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개인들이 교회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새벽 대각성 집회를 준비했다.

그동안 3개월 이상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중단됨으로 성도들의 영적생활이 많이 해이해졌고, 교회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COVID-19이 아직도 기승을 부림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교회의 위기상황 속에서 다시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고 온 교우들의 기도의 각성을 일으킴으로 교회가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새벽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8월 3일(월)-15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2주간 매일 새벽 5시 30분-6시 30분까지 실시한다.

강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



▲지난해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들로 성장시킨 1세와 1.5세 담임 목회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강민수 목사(시카고에릭슨연합교회)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이거스교회) △박만석 목사(뉴저지해제교회) △배성호 박사(신경과 전문의) △최순자 박사(소아과 전문의) △김준근 교수(JAMA설립자) △강순영 목사(JAMA대표)가 중보기도훈련을 겸한 새벽부흥회를 각각 인도한다.

JAMA는 찬양 두 곡과 감사 소개 및 설교를 매일 YouTube에 올리게 된다.



▲지난해 JAMA가 주관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ipc.jamaglobal.com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이 참가비 없이 참가할 수 있지만, 후원설교 제목과 강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모든 교회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

육군동지회남서부지회,

한국전 7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

분), 박경재 총영사가 각각 환영사를 했다.

표세우 주미국방무관,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신상균 2작전사 참모장이 각각 축사를 한 후 김해룡 회장이 LA한인회와 대한인국민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바리톤 장상근 교수가 축가를 부른 후 한국전참전유공자 30여명에게 마스크와 선물을 증정한 후 6.25 노래 제창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동지회남서부지회와 한국전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5일(목)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준비위원장 최만규 회장(육군동지회남서부지회)이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복은 육군동지회남서부지회 고문이 개회선언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미국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후 김회창 목사(남가주한국예비기독교인회 회장)가 기도를 했다.

이어 대회장 박흥기 회장(재향군인회미서부지부), 김해룡 회장(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김봉건 회장(자국

이효상원장 칼럼 ‘인공지능로봇’, 인간의 조력자인가? 인간을 대신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변형하고 대신할 정도의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일명, '로봇'이다. 로봇의 영역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며 인공지능을 내재한 알파고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이후 '인간의 조력자인가, 인간을 대체하는가'라는 문제가 현대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코로나 19이후 접촉이나 대면을 꺼리는 비대면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은 그 역할을 더 커지고 있다.

'로봇'이라고 하면 왠지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의 이미지나, 대화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 같은 이미지를 연상한다. 영화<터미네이터>에 나오는 T-600과 같이 인류를 공격하는 침략자의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있다.

1920년 카렐 차페의 희곡인 <로봇의 민중> R.U.R.에서 처음 등장했다. '로봇'이란 단어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오락적 존재나 살아있는 금속 인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희곡이 나온 뒤에 로봇은 금속 인형을 넘어 사회에 귀속된 기계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1962년 미국의 유니 메이션사가 최초의 산업용 로봇인 유니 메트를 생산해 제너럴모터스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설치하며 로봇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일본의 가와사키 사나스웨덴의 아베베사 등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며 로봇산업의 규모는 커져갔다. 커져가는 규모와 더불어 기술의 수준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그럼 현재 로봇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 태어나는 기계의 발전은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로봇 기술은 상상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따라서 몇 십 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일들을 현재의 로봇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간을 위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문명의 진보는 인간이 저절로 컨트롤 할 수 없



이효상 원장
근대문화진흥원

을 정도로 특이 되기도 하지만 특이 될 수 있다.

공상과학(SF)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 어떻게 드러날까. 사실 로봇이란 기술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며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가정하에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아니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인공지능(AI)'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20년쯤 지나면 인공지능(AI)이 한층 발전해 '로보 사피엔스(Robo Sapiens:로봇+AI)'를 이룰 것이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인류)를 기능적으로 뛰어넘을 것이고, 인간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 자라(창 2:7)"라고 설명한다. '생령'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living being-표준새번역성경,우리말성경) 또는 산영혼(living soul-kjv표준성경)을 말한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로봇이 소유할 수 없고 로봇과 달리 구별되어진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영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알파고는 처음부터 바둑만 너무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결국 이 엄청난 로봇의 존재에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영혼이 없는 쇠덩어리 로봇 볼 것인가, 논지는 '인공지능로봇'은 인간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는 대체품인가. '로봇'이라는 기계가 못하는 것, 인간만이 가진 본래의 자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자체가 대안이 아닐까.

◆자세한 건 인터넷방송 <http://jtntv.kr> <http://cpj.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노회, '기도로 이겨내자'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 1:3절)

총회와 관련된 신문방송이 약 5개월간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많아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영광교회)

총회장님과 임원여러분 본 방송과 신문사를 항상 협찬해 주셔서 힘이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장진리총회는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통합과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요한계시록 8장 강해(51)

하나님의 응답은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을 통해

〈지나호 이어서〉

계 8:5절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천사가 금향로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고 그 기도의 응답이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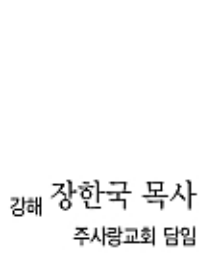
금 촛대 교회의 순교한 자들과 휴거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불을 쏟는 것이므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불바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사랑,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심이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현상이 땅에 음성, 천둥, 번개, 지진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은유적(헬라이어:메타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음성·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입니다.

*천둥·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따릅니다. 욥 26:14에 '하나님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천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번개·번개가 치는 순간 어두운 하늘이 환히 보이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다 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미리 예비하신 영광이요, 우리가 영생할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신 후, 그 영광을 환란을 통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게 하시므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쩍 비치는 번개입니다.

*지진·하늘에 쌓여진 것은 변동 없이 유지 보존되고 땅에 쌓여진 것은 여지없이 전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7년 환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음성'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강해 강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천둥'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여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일천 년 동안 장자로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해지는 세계가 확�히 됨이 '번개'입니다. 그러나 흑사 땅 위에 쌓여진 것이 있으면 빨리 하늘로 올려서 흔들리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라는 말씀이 '지진'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언급한 기도하는 두 부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되고 열매입니다.

6절)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을 자들로 준비되었다가 나팔을 받고 이제 그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과 일곱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 주셔서 결국 환란 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직접 실행시키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것을 땅에 쏟으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는 비로소 환란이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인을 때면서 첫째 나팔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면 7년 환란이 다 끝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사건들은 첫째 인을 펼 때와 확연히 양상이 다릅니다. 즉 나팔은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

인 우박과 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을 내려 징벌하셨습니다(출9:23:24).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신 후에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 즉 미츠티라의 쇠풀무 같은 연단을 받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과 징벌과 재앙으로 바로 세력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의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한 이적입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치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소유이며 모세를 위한 도구이듯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수를 치니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되어 애굽 하수 즉 애굽 사상이 전부 물러가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심받은 대로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개구리 이적, 세 번째 이적, 네 번째 파리 떼의 표징, 다섯 번째 애굽 생축의 죽음, 여섯 번째 독종의 징벌,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애굽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바로 세력이 꺾여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애굽에 하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열 가지의 순서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보았고 경험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 때는 단지 그림자였습니다. 앞에서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살펴본 대로 독종부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징벌·재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있게 되면 이것은 무

엇으로 봐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재앙·징벌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징벌과 재앙이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 시대는 누가 우리를 주장하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며 우리를 주장하여 회개도 시키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길러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 누가 주관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어둠의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상이 되므로 큰 재앙·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가? 그 답이 7절에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입니다. 본문의 나무와 풀은 일반 나무·풀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풀은 성경에 두 종류로 말씀하는데 창1:29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씨 가진 풀을 양식으로 주셨고, 창1:30에 땅의 짐승에게는 씨 없는 풀을 먹음으로 주셨습니다. 씨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영생)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푸른 풀은 모두 타버린다'는 풀은 씨가 없는 풀, 곧 영생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풀과 같은 자들은 금생의 분깃으로만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푸른 풀과 같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붙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의 육신 생명을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푸른 풀이 모두 타버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재앙·징벌역사가 있게 됨을 계시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복음·진리의 기독교라기보다 배도한 교회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장·예장통합 등의 많은 교단과 목사들과 교회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WCC는 천주교와 합세하여 활동하는 은사의 대표적인 단체이고 여기서 환란 날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는 영생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는 풀과 구별됩니다.

나무는 풀과 마찬가지로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도 듣고, 세례 받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믿음을 생활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중심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기 위해 하늘과 땅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는가? 이는 첫째 나팔을 불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표 666을 받도록 강요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경배하는 자가 나무와 같은 성도를 삼분의 일입니다. 그 후 계속 경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란 날에 예비처로 인도 받는 자들과 순교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더라. 9절)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을 단 두 절로 말씀했지만 온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타는 것은 멸망하는 산임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짝이 렘51:25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오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 내리고 너를 불 탄 산이 되게 하리라." (렘51:25)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불 탄 산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하고 온 세계를 정복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는 렘51:25의 '온 땅'과 같은 말입니다. '온 땅'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계8: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다는 것은 바벨론이 바다인 세상에 들어온 것·등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렘51:25에서는 큰 나라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목사코너 -270-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뗄 수가 있으리요

주시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한기보협 대학원장

(롬 8:35-36)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서정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심을 깨닫았는 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율법의 의를, 그의 회생에 의한 속죄 구원을 우리로 받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신 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는 성화를 시켜가면서 결국 순교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시대 종말에 그리스도는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의 신앙 경신을 기다리시며 아울러 천년이 하루같이 또한 역사 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란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환란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마24:21,29에서 말하는 큰 환란 즉 7년 대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순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이 곧 이 환란임을 깨닫고 오히려 환란을 기뻐하며 환란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심을 감사 찬송하게 함으로써 이 환란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 또 곤경도 마친가집니다. 스테노코리아란 원문의 곤경은 공간적으로 더욱 좁아지는 고통을 의미하며 즉 7년 환란 중에 우겨 씹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한다(고후4:8)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박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게 됨이요, 이로써 말씀의 뿌리가 약한 자는 배도하고 넘어지겠으나(마13:21)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힌 순교신앙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사랑에서 박해가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

그다음에 기근, 또 이어지는 열병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심해지고, 계6:6 말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 된다 했습니다. 이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즉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극심한 기근, 그리고 따라오는 비참한 열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여섯 번째로 위협이요, 마지막으로 칼이라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 이방인의 위험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생 위함과 교권, 동종의 위험인 같은 교인과 동역하던 목사들이 배도한 후 우리를 괴롭히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게 하는 위험도 우리를 떼어내지 못하리라. 마지막 칼이란 히 11:37의 순교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악행을 받되 칼로 목 베임 받는 것도 구차히 면치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하며 이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환란 시 순교할 때까지의 고난 받음을 온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는 고백입니다. 또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 받는 자, 사형 판결 받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능욕과 매 맞음과 고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 받게 될 죄임을 계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를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종신대학 이사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예배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보수 총회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서승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적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시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세백예배 새벽 5시
금요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나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5 |

여름에 무엇을 준비 할 것인가? (4)

마지막 때 옷 준비 약 준비 잘해야!

(지난호에 이어서)

4)소떼가어찌할바를 모른다,고했다.

소 때는 사명자, 집사급으로도 볼 수 있다. 좋은 집사가 여기 좋은 소 때에 해당되었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소 때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 때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곡식이 시들었다고 했다. 말씀이 시들었다고 했다. 소 때에 필요한 것은 풀이 있는 초장인데, 초장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 또한 양 때에도 황폐해 되었다고 했다. 일반 신자들이 초장이 없고 풀이 없으니 황폐해 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기근이다. 지금 위에서 말씀 드린 짐승들은 장로, 집사, 성도, 사도, 또는 일반 신자들로 볼 수 있다.

5)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즉기를 행하신다

불(진노, 심판)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고, 화염이 들(세상)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즉 진노, 재앙, 환난으로 말씀의 초장을 삼켜버렸으며,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육적인 교회 신자, 육적인 세상의 신자들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들의 짐승들은 예서와 같은 자, 육적인 자, 세상 사람들,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왜 위에서 보신대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강물들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물들이 말랐다는 것은 "강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들이 말씀의 강수가 다 말라서 없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말세에 말씀이 없는 교회다 다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다고 했다.

들은="세상"타락된 교회"온네 교회를 말함" 그리고 초장이 즉 말씀이 다 불에 삼켜졌다고 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엘 1:17-20절에 있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영적인 것도 망하고, 소떼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고, 높은 자들도, 목사도 다 망한다는 것이다. 장로나, 집사, 권사도, 평신도도,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제사장들의 말들이 통곡한다. 농부의 자식들이 통곡한다. 자기만 못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열

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이다.

창 41:45에서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프랏파아네아"이다. 사프랏파아네아= 이는 히=「세계의 구세주, 그런 뜻이다. 또는「비밀의 계시자라 는 뜻이다. 여기서 파아오는 요셉을 하늘이 내리신 인물이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비밀의 계시자로 알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요셉을 알기 원한다면 요셉의 7년 환난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의 구세주인 요셉을 모르면 망한다. 아무리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좋은 기름으로 몸에 칠감을 한다고 해도 세계의 구세주를 모르면 망한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자 예수로 오신다.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데, 인자사정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사람이 많으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두 번째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다. 인자사정이 없이 질그릇 부숴버리듯이 밟아버린다고 했다. 그때에는 웃도, 악도, 준비치 못한 자들은 이미 틀린 자들이다. 용서란 있을 수 없다. 왜 요셉의 이름이 "사프랏파아네아"인가? 세계의 구세주란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없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도 이 못난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먹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의 풍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이 올 때, 아플 때는 약이 있어야 한다. 말세에 우리는 두가지 준비해야 한다. 옷 준비를 잘해야 한다. 또는 약 준비를 잘해야 한다. 말씀 준비, 약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도 없다면, 아니 준비는 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으로 알고, 믿음이 약해지고, 죄악 된 생활에 빠져 있다면 이런 사람은 기름 떨어진 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왔음에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불법

정기남 목사
편집인

을 행하는 자신도 올라갈 것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 성경 어느 곳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종년이 들었을 때, 바로 믿고 바로 서야 하겠는데, 말씀만, 마음껏 받아먹을 뿐이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명하여 주신다.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치 않는 자들은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만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한다.

iv. 여름 타작마당 때,

1) 창 30:14~24절 참고, "김=자귀나무" "개=합환채"로 되어 있다. 합환채 이것은 히=「두다임」이다. 이는(사람의 사과) 그런 뜻이다. 그런데 오일이 감자류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뿌리는 인삼과 같다. 그런데 그 합환채를 먹으면 남자에게는 정육체가 되고, 여자에게는 임신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草食의 열매는 5월경, 보리 추수할 무렵에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풀인 합환채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헬」이다. 성경을 보면 또한 신비스럽다. 라헬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욱의 남편인(아람)을 언니에게 주고, 라헬은 합환채를 자신이 가졌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요셉」이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그 합환채를 통하여 요셉을 낳았다. 그렇다면 라헬이 그 합환채를 어떻게 했기에 요셉을 낳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라헬이 그 합환채를 삶아먹고 요셉을 낳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삶아먹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빼앗아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서 요셉을 낳은 것이다. 만일 그 합환채를 삶아먹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정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되는 결과가 온다. 정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은 육적으로 낳았다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육적으로 정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III.성막 형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5-

다윗의 실존적 믿음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라

(지난호에 이어서)

(2)하나님을 만나려 열 처녀 비유, 마 25:10, 계 19:9,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①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②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③ 자유함과 당당함이 생긴다. ④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가 온다. 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⑥ 가정이 행복해지고 형통의 역사가 따른다. ⑦ 천국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게 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9)

(3)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야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의함(意合)지 못하고 아저 동행하 겠으며」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님과 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 질 때 동행하여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동행하려면, ① 방향이 같아야 한다. ②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 ③ 가는 길이 같아야 한다. ④ 속도도 같아야 한다. ⑤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4) 믿음을 단순화하라.

예수와 연합되는 것은 신앙 예수

와 신부인 나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하면 처녀 총각 때 만나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동심일체(同心一體)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다. 진리는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고 그저 진리일 따름이다. 진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 진리는 그저 진리로 믿어라.

(5) 하나님을 형상화(形像化)하라.

깊은 믿음은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가질 수 있다. 영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으로 체험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영안을 갖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안이 아닌 실제적인 영안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하였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자신을 보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 겠으며」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님과 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 질 때 동행하여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6)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다. 인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며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섬기고 대접하여 드리라. 그리고 묻고, 부탁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라. 이상과 같은 방법을 시행할 때 그분의 체온까지도 느껴지며 그분과의 영적 교감이 항상 감동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창조와 감동이 느껴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고, 세상 만물이 사랑스러워지고 만물과 대화하며, 세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며 살게 된다.

4. 다윗의 실존적 믿음(시편 23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물로 존경받고 추앙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가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였지만, 다윗은 왜 아직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상으로 떠올라질까? 그것은 그의 신앙관 때문이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을 믿은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요,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 다윗의 실존적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구절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고 동행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시 23: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이 단순히 주인과 그가 기르는 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같은 절대적 권위와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도 없다. 양을 위하여 목자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요, 선한 존재요, 보호자,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는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비유하고, 그러므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ntv.kr http://cpj.kr)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ntv.kr http://cpj.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전남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7(심곡동)
H. 010-7788-0091 T.032-612-019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일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환자-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경북총회 총장
시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성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다”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한교총 논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7월 8일에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의 무효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O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체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통합)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대표회장 문수석 목사(합신)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었다.

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감정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파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얼음생수 30,000병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자관)는 2020년 7월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얼음 생수 3만병을 기증하여 사람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부는 혹서기를 맞이하여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이번 얼음생수를 7-8월 혹서기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구자관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얼음 생수 지급이 수용자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여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소장(오홍균)은 “도움을



주신 교정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회와 재고 밝혔다.

더러운 평화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북한도 공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화(寄貨)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웅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정말 그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인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숨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툭툭 못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이



사)한국교회연총회

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죽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화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이재명 지사는 ‘화려한 전승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지금 더러운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속되는 문제 발언에 대하여 일부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설화(舌禍)’가 끊어 없어 보이니, 누가 이재명 지사의 입을 좀 막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켜야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빛과진리교회 노회, 총회 농락 비판

조정위원회 보고 여러 가지 의혹 증폭

최근 ‘대변 먹이는 교회, 노회가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프로그램인 MBC PD수첩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노회장 황석산 목사) 소속인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에 대한 처리과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과 방송에 보도되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위 교회에 대한 탈퇴 건을 처리하면서 평양노회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원칙을 벗어난 비주식 처리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는 2019년 6월 2일(주일) 공동의회를 소집해 예정함동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음날인 2019년 6월 3일자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 체연합회(KAICAM, 약칭 카이캉)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 후 이런 사실들을 내용증명을 통해 예정함동 측 평양노회에 통보하였다.

빛과진리교회는 합동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카이캉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면 그 내용을 신문공고나 평양노회에 통보한 후 카이캉 가입 절차를 밟아야 원칙인데, 이 교회는 6월 2일 합동 교단 탈퇴 결의 직후 다음날인 3일 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카이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

무리 한 것이다.

문제는 빛과진리교회가 카이캉에 가입할 때 담임목사의 가입까지 결의되고 서류가 완비되어야 가입이 허락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회가 판단한 것은 빛과진리교회의 카이캉 가입이 김명진 목사가 여전히 예정 함동 소속인 채로 카이캉에 가입했기 때문에 교단 탈퇴 과정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과정들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후 평양노회(당시 노회장 장필봉 목사)는 탈퇴 공문을 받은 후 2019년 6월 13일에 제5차 임원회를 열고, 권면을 위해 위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6월 13일 내용증명 발송 후 1차로 6월 20일 권면 위원단 방문, 2차 7월 3일 소환요청, 3차 7월 6일 소환요청 등 3차례 걸쳐 권면위원들이 방문 및 만남을 통지하였으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이를 무시, 만남이 무산되었다.

그러자 평양노회는 7월 8일 임시회를 열고 ‘빛과진리교회 교단 탈퇴 건’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서기 강재식 목사)를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이후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측과의 여러 차례 조율 끝에 2019년 10월 14일 제185회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교단 탈퇴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 고영기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는 2019년 6월 2일 빛과진리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재차 가진 공동의회에서 1차 회의를 원천무효임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노회도 보고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해주었다.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는 보고에서 “빛과진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로 지난 임시노회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수차례에 걸쳐 권면을 하고 임시당회장 박원영 목사를 파송했다. 결과적으로 탈퇴를 반복하기로 했으며, 빛과진리교회가 탈퇴하는 과정이 합법적 못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회원들이 받아주기를 청원한다”고 보고 하였다.

문제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불법으로 교단 탈퇴 과정을 주도하였고, 탈퇴한 이후에도 노회의 권면위원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과 노회의 소환요청에 불응하고, 또 조정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면에 가까스로 협상되어 복귀하면서 조건부(?)로 부노회장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어 교단 목회자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나 노회가 교단 탈퇴 과정을 주도한 김 목사의 불법성과 노회를 농락하다시피 한 김 목사를 재판을 통해 시벌(벌을 줌)절차를 밟았어야 옳았



다. 관용은 그 이후에 해야 일이다. 합동 측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가 노회 무단 탈퇴 등 불법성이 적발되면 처리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노회는 불법을 저지른 김 목사에 대해 처리는 고사하고 노회가 지나치게 끌려가며 농락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교단 법이나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봐주기 식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7월 9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노회위원인 김0일목사는 “김(명진) 목사의 행보가 불법이다. 유권해석에 무단 탈퇴는 면직에 처한다”며 “공회인 노회 권한을 갖고 권면위가 세 차례나 방문했으나 무시당했는데, 교회는 노회 소속이라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임의 행동을 김 목사에 대해 노회 원칙과 규칙대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성토했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http://www.mokpojuan.com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멀티사이트 교회 MultiSite Church The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성현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808, 276-1006
남양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60번길 17 전화/061-287-0882
용화주안교회 : 목포시 용화지구로 61(연산동) 삼향빌딩 301호 전화/061-277-0891

꿈이 이루어지는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2020년 2인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교회 성령이 일하시는교회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주일 3부예배(일) 오전 11시
찬양예배(일) 저녁 7시30분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금요철야예배(금) 저녁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 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30분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목양칼럼 -23-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지나호 이어서〉

이 생명이 모든 죄와 실존하는 죄의 세력인 원수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부요함이고 강건함이고 축복이고 형통함이고 영생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고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요 팔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지식)에 있던 이 생명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살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히 4:2).

우리가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굶주려야 합니다.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 것이 굶주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고통 받으며 신앙 생활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매일매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 아직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영의 사람)이 만족이 없다가 굶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만 되어도 주님을 의지하여, 금방 풍성한 생명을 얻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 사람은 항상 배가 불러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는 만족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더욱 굶주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살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TN TV 상임이사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는 주님이 나가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갈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진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누가 이사 들어와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놀랍고 풍성한 생명이신 주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진 않으면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자신(거듭나기 전의 옛사람)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고 미워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한 고통으로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자신이 노력하지 말고 도리어 포기하시고 자신(이미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옛사람-자아)을 버린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실 것입니다.

19.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히 12:4).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고 하심 같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가 아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에는 원죄와 유한한 생명, 저주받은 썩어질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보혈에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므로 죄와 원수마귀를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자기의 생명(혼)이 다한 사람만이 그래서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혼, 자기의 피)을 구원코자 하면 (영, 주의 보혈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혼, 자기의 피)을 잃으면 (영, 주의 보혈을) 구원하리라”(막 8:3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버린 자가 그의 피를 사랑하는 자는 (영, 주의 보혈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혼, 자기의 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 주의 보혈을) 보존하리라”(요 12:24,25).

자기 피를 다 흘린다는 것은 자기의 (혼의)생명이 다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안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हम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8-9).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열드러지느니라”(잠 24:16)고 우리가 완전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신이 죽는 자 같음과 죄인 중에 과수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시므로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참 자녀를 얻으십니다. 완전수인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범죄해 넘어졌을 때,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분히 받으셔서 근본 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아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이사가 1장 강해(6) |

〈지나호 이어서〉

[예 4장] 하나님의 구원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제 유다는 또 한 번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결과가 상해로 묘사되어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를 취하게 될 남자 빈곤 현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윤리 의식의 파괴와 더불어 가족 관계의 장기적인 파괴를 암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오랜 전쟁이 끝난 뒤의 참혹한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경고 뒤에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영광과 구원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그 위업을 시온에 남은 자들이 이어갈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어가시는 것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나라의 타락된 문화에 흡수되어 죄악을 일삼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비록 참혹한 전운만이 감도는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상해되지 않고 결국 남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본장은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외로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즉 녹명된 자들은 분명히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날이 이를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서에 면면히 흐르는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실히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이 누릴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쟁의 실패로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어 한 남자를 일곱 명의 여자가 붙잡는 비참한 상태가 이

김성립 목사
강의 제자신학원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본문이 주는 메시지
‘그날’이라는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실의와 고통에 빠지는 날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비록 전쟁의 불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남아 언약의 백성으로서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유대 백성들은

교만에 의해 우상숭배, 자기만족, 음란에 빠져 멸망을 자초

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본해)

1.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 예언 (2-6)

사 4:2 그 날(바람 하우)에 여호와와 함께(제마호)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신학 포인트]

여기서 남은 자들은 앗수르와 바벨론 등의 침략이 있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거나 본토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일컫는데, 하나님께

스라엘에 임하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심판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즉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라 여겨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부정한 등을 처단할 방법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용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율법이나 전통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죄악상으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다. 이것은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시며 부정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하는 자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1)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지저스타임즈·CPJ TV·JTNTV는 후원 이사 및 회원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지면 신문과 인터넷방송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사 장	논설고문	부이사장	부이사장	발행인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수석상임이사	부이사장	상임이사	후원이사	운영이사
													
하창범 목사 부흥교회	소진우 목사 여복교회	백명운 박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장현국 목사 수사당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정기남 목사 관악교회	박수영 목사 광복교회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오종설 목사 홍성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김창수 목사 주미교회	윤석희 목사 예전교회	박창성 목사 순복음교회

금주 신문이 발행되기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이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사님께서 기도로 후원으로 동참해 주셨기에 지저스타임즈 제13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 : 장현국 목사 백만원, 이규필 목사 50만원(매월 10만원), 오종설 목사 20만원, 조영만 목사 10만원(매월 10만원), 곽동훈 목사 10만원(매월 10만원), 김창수 목사 10만원(매월 10만원), 윤석희 목사 10만원, 박수영 목사 10만원(매월 10만원), 서사라 목사 10만원, 서재식 목사 1만원, 장국환 집사 5만원, 이창식 목사 5만원, 웨신총회 20만원, 박창성 목사 5만원, 서정아님 5만원, 모상련 목사 10만원, 이요셉 목사 100만원, 피종진 목사 10만원, 최사라 장로 20만원, 한기장 목사 20만원, 이 외 1만원-10만원 후원금은 무명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간 교계 행사가 거반 취소되었기에 수입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생활에 어려움도 있지만 참을만 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 여러 이사님이 계시기에 힘이 납니다. 신문발행과 방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처 :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02호) 이멜 : jtpress@hanmail.net jtntvcpij@naver.com http://jtntv.kr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H.P 010)5468-6574 사무국장 윤석희 목사 010)3064-8815

오늘의 인물 포커스

34년을 주님과 함께 한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



한경총 총회장 이창식 목사



총장 홍항표 목사

조근정훈장 등 많은 상을 수훈하며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신앙이 돈독한 조 청장은 지난 34년간 재임 기간 경기도 과천시경찰서, 용산경찰서장을 역임하면서 신우회를 활성화하고,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의 복음화를 위하여 신우회를 결성하여 많은 경찰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 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조현배 전 청장은 기도와 주일성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신앙이 돈독한 크리스천이었다.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3월 5일 제16대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1년 8개월간의 재임을 끝으로 퇴임했다. 조 청장은 재임 기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기획전문가이며 청렴한 경찰공직자로서 바다를 지키는 일에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본청을 중심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 교육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청비행 등 27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고, 해양주권 수호, 해양 수색, 구조, 해양관련 범죄 예방, 진압, 수사, 해양오염 예방, 방제 등을 주관하

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2014년 11월 19일 해체되었던 해양경찰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해 부활하여 2017년 7월 제출법 이후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았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민적 기대를 안고 2018년 6월 취임한 조현배 청장은 위기의 조직에 부임해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면서 취임 당시 무거웠던 사명감에 부담도 스트레스도 경험 많은 경찰청장 출신으로서 냉정한 시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각오로 우리를 기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과적으로 조 청장은 열의와 헌신, 리더십으로 해경은 2018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데 이어 2019년에는 정부조직 관리 최우수기관, 정보분야 최우수기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어 정부 핵심부처로 거듭날 수 있기까지 성과를 거두었다.

제16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020. 3. 5일 퇴임한 후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창식 목사) 회장단의 초청으로 목동 모 식당에서 회식을 갖고 조현배 전

청장의 노고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경목총회 총장 홍항표 목사는 배석한 총회장 이창식 목사, 상임회장 허 식 목사, 증경회장 최현기 목사,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우승초), 언론사 대표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cjntv) 등을 소개하고,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개했다.

협동총무 우승초 박용숙 목사는 조 전 청장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하라며 화환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경찰에 입문한 지 34년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재임 기간 가는 곳마다 경목회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가 우리 경찰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사를 전하고 덕분에 34년을 도전적으로 혁신하면서 관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은 중심에서 해결할 기회를 주셔서 어렵지 않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이는 다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다. 한국경목총회 회장단 여러분께서 오늘 저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찬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이에 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이렇게 명예스럽게 퇴임하게 되어

감축한다면서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조 청장의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께 이름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후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부모로서 또 시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따라서 상임회장 허 식 목사는 오늘 귀한 만남을 주셨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맡아 주실 것을 믿는다며 이처럼 다들 어지고 준비된 인물이 드물다면서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또한 증경회장 최현기 목사(예장백석 증경총회장)는 민중의 지광이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셔서 이 나라에 반드시 큰 일을 하실 것이라며 격려했다. 앞으로도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와 축하를 기원했다.

이러진 식탁의 자리에서 많은 덕담을 나누었으며 상임회장 허 식 목사는 조현배 청장을 한국경목총회 고문으로 추대할 것을 건의하고, 조현배 청장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할 것과 한국경목총회의 발전상을 논하는 가운데 이날 화기에애한 만남의 장이 되었다.

2020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을 오늘의 인물 포커스로 선정하고 만나본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은 1987년 경찰간부후보 35기 출신으로 과천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조현배 청장은 대통령, 내무부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표창, 홍

(사)청교도사도영성 신학원 아카데미 개강예배 드려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



총장 홍항표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원 아카데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시는 신념과 청교도 사도들의 영성 예수님의 생



명령인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갖자고 지난 주간 개강예배와 강의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 3층,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맥추감사절을 지낸 지난 주간 학장 방광민 목사의 인도로 개강예배가 시작되어 기도예배 박창수 목사, 강은아 전도사가 성경봉독(요 20:26~31)을, 이수미 전도사의 특송에 이어 총장 홍항표 목사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목회"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홍항표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한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며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 주셨다며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자고 했다.

이어 정봉기(증경총회장) 목사의 축사, 허 식(한경총 상임회장)목사의 격려사, 김윤옥(서울노회 고문) 목사가 권면, 총장 홍항표 목사가 교과서 소개가 있었으며 학장 방광민 목사가 광고를, 끝으로 이상수 목사(사, 청교도총회 증경총회장)의 축사로 1부 개강예배를 마쳤다.

2부 심포지엄 첫 번째 강사 정봉기 목사가 청교도 신학 정신이란? 주제로, 둘째로 강사 홍항표 목사가 "사도영성 신학이란" 주제로 전했다. 이날 설교 및 강의는 지저스타임즈 인터넷방송(http://cpj.kr)(http://jntv.kr)에서 총장 홍항표 목사, 증경총회장 정봉기 목사의 심포지엄 내용을 자세히 가감 없이 동영상상을 통해 방송되고 있어 언제



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개강에 앞서 오전 11시 청교도총회 서울노회(노회장 방광민 목사)는 1부 회의식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 방광민 목사는 "협력이 하나 되는 노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2부 월례회를 가졌다.

한편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 아카데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시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 1부 이론과 2부 실제, 3부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을 전제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수시로 접수가

가증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3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철저히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교에서 학장 방광민 목사, 또는 홍항표 총장과의 만남을 통해 강의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본교문의 02-2625-0982

경 2020년 맥추감사절 기념 경찰청·한국경목총회 축																			
총회장	전 해양청장	총 장	28대총회장	30대총회장	명예 총회장	34대총회장	36대 총회장	37대 총회장	38대 총회장	40대 총회장	고 문	수석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창식목사	조현배청장	홍항표목사	조용무목사	엄산영목사	김종순목사	허 식목사	이상재목사	김진수목사	최현기목사	박용숙목사	관대목사	전남호목사	김정봉목사	상진목사	김정봉목사	남기현목사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화사기	회계	행정·법	총무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안문대표	국가대표	국세대표	국세위원	의료대표	선교대표	홍보국장	사무국장	협동총무	서 기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우영준목사	양재목사	김정준목사	박재현목사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안문대표	국가대표	국세대표	국세위원	의료대표	선교대표	홍보국장	사무국장	협동총무	서 기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표어 : 대한민국 14만 3천(경찰 13만 해양경찰 1만 3천)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발행인	배경인	김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정준	차재현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
강남위원	이강위원	양재위원	김정위원	김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이강위원
한국경목총회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1. (사랑의교회/사도영성신학원) 총장 : 홍항표 목사 010-7585-1955, http://www.gapck.or.kr 홈페이지 한국경목총회																			



2020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나의 마지막 말은?

성경: 사도행전 23:1-7 찬송가: 찬송가 399장

다윗은 노년에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 받은 자, 노래 잘 하는 자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생활은 어려워도 생각은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합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결코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찾았습니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리의 신분

성경: 베드로전서 2:4-10 찬송가: 찬송가 288장

성경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과 자존감 있으면 환경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종노릇 보다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에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제목: 허무한 세상

성경: 시편 90:16-17 찬양: 찬송가 66장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삶은 천년이라 하더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런 허무함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제목: 의지할 분

성경: 시편 91:1-4 찬양: 찬송가 79장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튼튼한 방패와 손 방패가 있으면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성도의 힘과 방패인 것입니다.

제목: 보호하심

성경: 시편 91:5-8 찬양: 찬송가 304장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성도가 재앙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때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제목: 우리를 돕는 분

성경: 시편 91:9-13 찬양: 찬송가 371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시어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명하시는 일들을 받드는 자들인데, 성도들의 모든 길 즉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돕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이지 않게 막아주신 것처럼, 또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사도 베드로를 기이하게 풀어내신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목: 의와 선

성경: 시편 91:14-16 찬양: 찬송가 92장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하며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은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을 것입니다.

제목: 지존자

성경: 시편 92:1-4 찬양: 찬송가 377장

하나님께서 '지존자' 곧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심, 즉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잘 나타났고, 또 그의 신실하심은 그의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즉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밤마다 즉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영원히 높임 받으실 분

성경: 시편 92:5-8 찬양: 찬송가 435장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흥왕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도 악인이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행동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에 던지시므로 갑자기 황폐케 된다고 증거했습니다(시 73:3-12, 18-19).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

록 지존하십니다. '지존하다'는 말은 그의 존귀와 영광이 심히 크심을 나타냅니다. 악인들의 영광은 일시적이거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목: 공의

성경: 시편 92:9-11 찬양: 찬송가 348장

시편 저자는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원수'는 또한 '성도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며 인간의 본성은 심히 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지옥 형벌을 내리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의인의 삶

성경: 시편 92:12-15 찬양: 찬송가 347장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의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크신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신 34:7) 갈렙이 85세에 힘이 강건해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수 14:10-12), 의인은 늙어도 심신

의 강건함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제목: 질서를 세우시는 분

성경: 시편 93:1 찬양: 찬송가 63장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을 때(창 6-8장) 그의 통치자 되심이 더욱 두렵게 증거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가 만드신 우주만물을 홀로 통치하십니다. 그는 왕과 재판장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임하셨습니니다. 그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주만물을 붙드시므로 온 세상은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도덕적 질서도 견고히 세우시는 자이십니다.

제목: 왕 되신 주

성경: 시편 93:2-4 찬양: 찬송가 24장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은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의 역사를 홀로 주장하셨고 다스리셨으며, 지금도 온 세상을 홀로 섭리하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다고 말합니다. 홍수 때의 물결이나 바다의 흉운한 파도들은 매우 위협적이지만, 높으신 통치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 되고 평온케 될 것이며 또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두렵게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예배

집승의 마음 (단 4:10-18)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집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16절).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얘기로 왕이 결국은 집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 즉 7년을 집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특정 동물과 동일시하여 그 동물처럼 행동하는 병증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 그런 병으로 7년을 집승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33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집승의 마음을 불어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7년간 집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하셨는지?

성경은 그것을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30절)고 한 그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31절).

어느 시대 그 누구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교만한 자는 그 안에 〈집승의 마음〉을 품은 자고, 겸손한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이다(빌 2:5).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자기를 비워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다. 때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라 해도 교만 믿음은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결단과 적용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집승의 마음을 주사 소처럼 낮추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아는 교만과 겸손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 번 적어 보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되 왜 7년 간(일곱 때) 소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리신 집승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반드시 주님처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필히 낮추시며 집승처럼, 소처럼 살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처럼 높은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집승의 자리로 추락해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사 늘 겸손하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cls 세백종소리 제공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170만원

(2019년 기록과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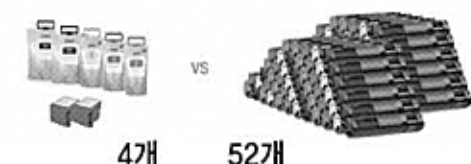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넷에서 주보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현금통투, 소모투, 대모투 출력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대용량 용지 급지대 지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C, M, Y 4개)를 더드립니다.



TEL. 1588-0691 서울시 중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혁영 대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영광기업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교회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덤핑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0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 추천!
반석위에 십자가 대량/소량 판매중!

경기가 안좋으니 좋은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제품이 비싸고 못팔아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원가에 반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8만개(10만개 중 2만개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가격은 39,000원 /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15,000원 / 인터넷에서는 10,000원 (*택배비별도)
이 제품을 박스단위로 5,000원씩 (택배비포함)드리오니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혁영장로 ☎010-5779-0691 ☎010-3651-8572



순서를 인도하는 저자 이흥선 목사.



대표기도하는 최성대 목사.



말씀을 전하는 길자연 목사.



서평을 전하는 이상달 박사.



격려사 전하는 나경일 목사.



축사 전하는 김현두 목사.



영상 축사 전하는 서철원 박사.



영상 축사 전하는 소강석 목사.

“신천지 어떤 곳인가?” 출판감사예배

이흥선 교수 저술, 부평선민교회서 29일 가져



이흥선 교수에 의해 집필된 “신천지 어떤 곳인가?” 출판 감사 예배가 지난 29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세계로 선민교회(담임 김현두 목사)

본당에서 길자연 목사, 나경일 목사, 김현두 목사 등 교계 지도자 및 목회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드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대 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속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출간을 기념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소를 제공한 세계로 선민교회 성도들과 이흥선 교수가 시무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봉사를 맡았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마스크착용, 손소독,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체크를 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자인 이흥선 목사(총신대 교수·인천제일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최성대 목사(전 달라스신학교·안양대 신대원·대한신대원 교수)가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사회자의 성경봉독(시편3편1-8)에 이어 특송시간에는 인천제일교회 남전도회 3중주와 김종민 성도의 색소폰 연주로 특별 시간을 가졌다. 설교는 길자연 목사(전 총신대·갈변대 총장·전 한기총 대표회장)가 “다윗의 기도”란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길자연 목사는 설교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 사람은 거대하게 보인다. 감당하지 못할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물고기 배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 요나 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앞에 오늘의 재앙인 악성 코로나19도, 신천지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달 박사(엔크리스토 성경연구원장)가 서평했다. 이 박사는 “이흥선 교수로 부터 저술된 ‘신천지 반증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신천지와 계시록을 창조 이래 최초로 잘 비교 분석한 반증서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박사는 “긍정적 측면, 다소 아쉬운 측면, 숙제적 과제 보완을 드릴 부분 등” 3파트로 구분 서평을 했다.

나경일 목사(전 장신대학교 이사장·주안장로교회 원로목사)는 격려사에서 “신천지 반증서 출판은, 한국교회사에 유독한 금자탑을 세운, 이흥선 목사의 탁월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또 축사에서 김현두 목사(성경과 목회연구원장, 세계로 선민교회 담임)는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기에 진리인 것이다. 이흥선 목사는 훌륭한 중언기에 이 목사가 쓴 책도 틀림없이 훌륭한 책이다”며 “이흥선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종이고 성령의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종이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종”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신학자인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부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는 영상 축사를 통해 “이 단 관련 저서 특히 신천지 같은 반사회

적, 비윤리적인 집단을 비판 반증한다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예장합동총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행사 당일부터 시작된 합동총 목사장로기도회로 인해 참석을 못해 대신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소목사는 축사에서 “신천지 어떤 곳인가란 이 책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고 전했다.

저자인 이흥선 목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그동안 이목사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며 물질상면으로 기여한 권영애 목사(송

속의 길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 했으며, 길자연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책 구입은 교보 및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출판사, 저자에게 직접 구입하면 정가 3만원의 책을 2만5천원(택배포함)에 구입이 가능하다. 주문처는 032)864-0474나 저자 010-5525-8182 주문계좌는 농협 351-0836-5315-93 예금주:성서북스이며, 입금 후 받을 주소를 문자로 남기면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책은 고급 양장본으로 내지전체가 컬러판으로 되어있다.

(정기남 한창환 기자)



행사장 전경, (최성대 목사가 대표기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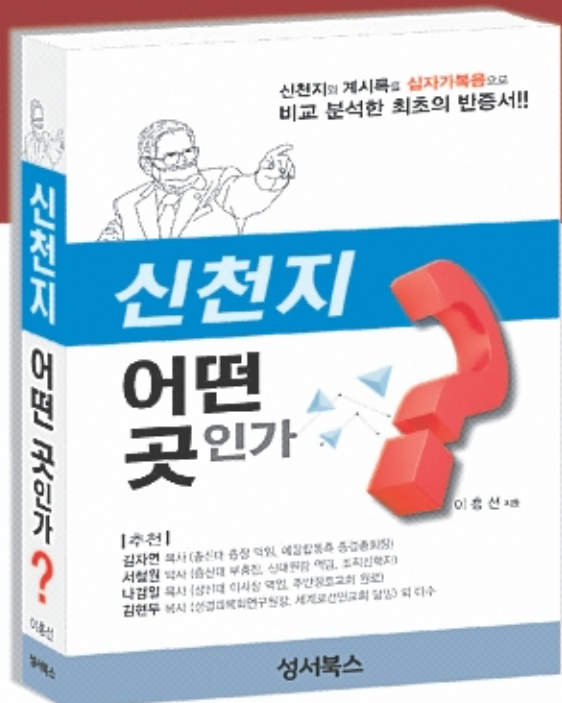
권영애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저자 이흥선 목사.



특송하는 인천제일교회 3중주 (좌로부터 색소폰 김종민, 정성우, 이정을 성도)

신천지 교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비교 분석한 한국교회 최초의 반증서!!

본서를 읽으면 성경의 맥이 정확히 읽혀집니다.



이만희 교주의 잘못된 주장 반증과 윤리적 일탈까지 사진과 글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종합 비판서!

기획 : 한국개혁주의성경신학회

저자 : 이 흥 선 (총신대 평생교육원(전) 실천목회연구원 교수)

정가 : 30,000원 (고급 양장본, 내용을 칼라)

할인가 : 25,000원 (택배무료)

이 한 권의 책속에 복음의 핵심을 알기 쉽도록 함축 정리

◆ 최고의 신학자 및 이단연구가 감수 검증된 변증서 (다수 추천함)

“특별히 신천지와 계시록을 십자가 복음으로 비교 분석한 반증서여서 기대가 큼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교과서와 같은 등대와 같은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 읽으시기를 간절히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추천에서) 예장합동총 부총회장/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다. 계시록의 핵심전리인 복음으로 이만희 이단의 주장들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前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신학대학원장 서철원 박사
복음의 핵심들을 단순히 명료하게 전개해 주어 평신도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 한권이 기독교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총신대, 갈변대 총장, 합동총 중경총회장, 한기총 2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특히, 십자가 복음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前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주안장로교회 원로 나경일 목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참으로 올바른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진리를 사모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며, 이 책이 만민에게 읽히기를 소망한다.”

성경과 목회연구원장, 세계로선민교회(합동) 담임 김현두 목사

“앞서 나온 많은 책들과 함께, 아니 다른 신학적 접근과 더 발전된 논리로 신천지 대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이단연구가, 「교회와 신앙」 편집인, 빛과 소금교회(예장통합)담임 최상경 목사 외 추천

- 성경과 신학의 기본 구조와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
- 신천지 주장의 계시록을 성경적 바른 해석으로 비교 변증
- ◆ 성경공부용으로도 적합한 종합 교재
- ◆ 계시록 전체 구조 알기 쉽게 정리
- ◆ 신천지의 포교방식과 대처방법
- ◆ 이교(異敎) 및 대표적 주요 이단 정리
- ◆ 건전한 정통교회와 이단 구별법 및 건전교단 목록 정리

출판사 주문처 : 032)864-0474 (저자) 010-5525-8182
(농협) 351-0836-5315-93 (예금주:성서북스) ※ 단체주문 상담환영
※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로 직접 주문하시면 더 저렴합니다